

K-Pop과 K-Food

김현구 산행수필가 · 한국식품연구원



오늘날 한류열풍으로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등의 K-Pop은 아시아를 거쳐 프랑스, 영국 등 유럽까지 휩쓸고 그 이후 뉴욕 등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. 음악에 문외한인 나도 소녀시대나 원더걸스 그룹이 율동을 하며 노래하는 것을 보면 깊게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. 그리고 요즘 한 방송사에서 진행되는 K-Pop 스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가족과 함께 시청하고 있다. 스타들의 경쟁은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불꽃을 태우고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지만 탈락되는 스타들이 한편 애처롭다. 피나는 경쟁으로 한 명의 K-Pop 스타가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K-Food도 철저한 준비와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.

세계적인 K-Pop의 열풍은 지구촌에 K-Food를 소개하는 데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다. 우리가 매일 상식하는 식품은 우리의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것을 토대로 개량하고 발전해 왔다. 우리의 전통식품인 고추장과 된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. 우리가 예로부터 먹어왔던 비빔밥, 불고기, 잡채 그리고 김치는 K-Food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.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K-Food는 단 몇 시간의 요리강습으로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우리 조상으로부터 먹어 온 전통식품엔 오랜 전통의 문화가 들어있다. 우리의 전통식품에 내려온 문화와 더불어 각각의 식품에 들어있는 혼과 얼을 토대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외국인에 소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.

우리의 전통음식도 K-Pop 스타를 비롯한 한류 붐을 타고 지구촌에 소개되고 있다. CJ FoodVille은 「비비고」라는 비빔밥 전문 레스토랑을 미국,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 등 전 세계에 운영하면서 K-Food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다. 국내 토종 외식 브랜드들도 K-Pop 열풍에 힘입어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.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한식세계화 사업으로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뿐만 아니라 고추장 버거 스테이크와 김치 핫도그 등 퓨전 음식도 지구촌에 선보이고 있다. 이와 같은 노력은 머지않아 단순히 식품만을 지구촌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식품에 스며있는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수출하는 것이 될 것이다.

오늘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-Pop의 태풍은 K-Food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. K-Pop의 문화를 일으키고 전승하는 기저에는 우리 식품의 혼과 얼이 들어있다.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들은 하얀 저고리를 입고 김치와 된장을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하였다. 반만년 역사에 걸친 K-Food의 종류는 발효식품을 비롯하여 많은 전통식품이 있으며 오늘날 한식의 세계화 사업으로 글로벌 식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K-Pop 가수들이 그렇게 신명나게 노래하고 춤 출 수 있는 것은 평소 그들이 먹고 지내는 우리의 식품에 기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. 반만년 역사를 지닌 우리 한식의 우수성이 드리워진 K-Food에 기반한다고 본다.

농림수산식품부는 「한식 우수성·기능성 연구사업」을 통해 우리의 K-Food가 서양식에 비해 저열량 식품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. 한국식품연구원 김은미 박사팀의 연구 결과 한식처럼 섬유소 함량이 높고 다양한 식재료가 포함된 경우 열량 값이 에너지전환계수법과 큰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한식의 열량 값을 과다평가하고 있음을 밝혔다. 동물실험을 통해 산출한 식품의 열량 값과 기존 에너지전환계수법에 의한 열량 값을 비교해보니, 비빔밥과 현미밥의 경우 기존 계수법은 10% 남짓 열량 값을 과다평가한 반면 피자는 10% 정도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.

K-Food는 건강식품일 뿐만 아니라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끈질기게 전해온 식품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다. 각각의 우리 전통식품들은 이미 밝혀진 기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기능성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. K-Pop 스타를 앞세운 시식회나 제품 홍보 등의 단순 프로모션 마케팅만으로는 K-Food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. K-Food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. 우리 식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, 어떤 기작에 의하여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밝혀 세계의 식품학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우리의 K-Food는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.

K-Pop 스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불꽃 튀는 경쟁을 거쳐 한 명의 K-Pop 스타가 탄생하듯이 우리의 K-Food도 영원한 생명력을 얻기 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우리의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하여 K-Food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.

오늘날 지구촌에 태풍처럼 불고 있는 K-Pop의 열풍은 K-Food를 크게 발전시킬 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.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먹어야 살 수 있고 건강해야 나라도 발전시킬 수 있다. 따라서 K-Pop 등 한류열풍을 기회로 K-Food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. K-Food의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건강식품임을 밝히고 K-Pop 스타를 통하여 홍보를 하게 되면 머지않아 우리의 식품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여 본다. 여기에 우리의 혼과 열이 스며있는 K-Food의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식품을 동경하게 되리라 생각한다.